

“한반도 정전 종식 평화 이룰 것”

문 대통령, 교황청 한반도 평화 특별미사 연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파롤린 국무위원장이 집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각) 교황청 한반도 평화 특별 미사에 참석해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보 10월 18일자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각 18일 오전 1시)부터 바티칸 성베

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위원장이 집전한 ‘한반도를 위한 평화 미사’에 참석해 미사 후 기념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는 문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교황청에서 특별히 마련됐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열원을 담았다. 한국 대통령이 교황청 미사에 직접 참석해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청이 전 세계 교회의 규율과 방향성을 정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synod) 기간 동안에 해외 정상을 맞이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국무총리격에 해당하는 파롤린 국무위원장이 집전 미사를 집전하는 것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오후 6시 정각에 문 대통령 내외가

성베드로대성당에 착석하자, 곧바로 미사가 시작됐다. 입당 성가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평화를 주옵소서’를 시작으로 시작 예식이 열렸다. 말씀전례, 성찬전례 순으로 진행됐다. 파롤린 국무위원장은 본격적인 미사 시작 전에 한국어로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장의 한국어 인사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파롤린 국무위원장은 말씀 전례순서인 강론에서 “하느님께 온 세상을 위한 평화의 선물을 간청하고자 한다”며 “특별히 오랫동안의 긴장과 분열을 겪은 한반도에도 평화라는 단어가 충만히 울려 퍼지도록 기도로 간구하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오랜 친구로 신자로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문 대통령은 단순 참관이 아닌, 국무위원장 집전 미사의 모든 예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참례(參禮)를 했다. 이번 미사에는 100여명의 교황청 관계자를 비롯해, 130여명의 한인 신부, 외국인 수녀, 우리 교민 등 약 500여명이 참여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synod)에 참석 중인 교황 임명대의원 유홍식(대전교구장) 주교, 주교회의 대표 조규만(원주교구장) 주교와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서울대교구 보좌) 주교도 참석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로마 바티칸 교황궁 교황 집무실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교황에 ‘김정은 방북 초청’ 메시지 전달

교황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0분부터 12시48분까지 38분 동안 바티칸 교황궁 2층 교황 서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배석자 없이 단독 면담했다. 게오르그 간스바인 교황청 궁내원장의 영접을 받은 문 대통령은 수행원과 함께 ‘작은 왕좌의 방’이라 불리는 ‘살라 델 트로네토(Sala del Tronetto)’에서 교황을 알현했다. 교황과 함께 간단한 기념촬영을 문 대통령은 내부 서재로 옮겨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한채 단독 면담을 시작했다. 교황청 인류복음화사에서 근무 중인 한현택 신부가 순차 통역을 맡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면담 장소인 서재로 들어서면서 문 대통령에게 “만나뵈게 돼서 반갑다”는 이탈리아어로 된 짧은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만나뵈게 돼서 반갑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교황청을 방문했지만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 등 한국과 교황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에서의 가톨릭 역할, 한·교황청 관계 발전 등도 논의 대상이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백두산 천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초청의 뜻을 교황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시스

‘빛져도 인력 증원에 성과급까지 챙겨서야’

유성엽 의원, 기재위 국정감사서 공공기관 방만 운영 지적 부채규모 496조... 가스공사, 부채 29조에도 기관장 성과급 지급

공공기관의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사진)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실태를 혹독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총 338개에 이른다. 총 임직원은 31만2,000명이며 평균보수는 6,700만원이다. 문제는 부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총 부채는 작년말 기준 496조원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실질 GDP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부채 감축의 의지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부채감축은 약 9조원으로서 총부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100조원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동기반 오하러 107.3조에서 108.8조원으로 1.5조원 부채가 증가하기도 했다. 손익 구조도 문제다. 작년 한해 은행 3곳(수은, 산은, 기은)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 중 41.2%에 달하는 138개 기관에서 손해를 봤다. 물론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회계처리상 불가피하게 손해가 나오는 곳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절반 가까운 기관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방만 경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은 계속 늘어난다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반영해,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2016년 대비 공공기관 정원은 2만 3,000여명 증가했다. 신규채용은 작년 2만2,554명으로 2013년 1만7,277명에 비해 4년만에 30.5%나 증가했다. 이렇게 인원이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채용에 허점이 생기

게 되고, 실제 올해 초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257개 기관 총 2,31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9조원의 부채로 중점관리 대상인데다가 작년 1조1,900억의 손해를 보고 도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원도 16년 대비 150명 증원했다. 한국철도공사도 상황은 비슷해 부채 20조원에 8,855억을 손해보고도, 5,4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하고 947명을 증원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전혀 고쳐질 생각을 안하고 있다”며, “이는 주인 없는 회사라는 공공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은 내태와 방만 경영 등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구축효과도 초래해 재정증수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잠재성장률도 좁혀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악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만한 공공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동일 건물 대상 국토부와 국세청간 가격차 최대 74억”

정동영 의원, 공시가격 상위 20위 건물값 비교분석 결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고시한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에서 산출한 건물(집)값은 서로 다른 것으로 18일 조사됐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사진)실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위 20위 고가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의 건물(집)값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건물가격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18년 고시한 상위 20위 단독주택의 땅값+건물값(공시가격)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빼서 건물가격을 산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의 경우는 국세청이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과 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활용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주택의 주

소와 연면적 등을 기입하면 누구나 산출할 수 있다. 비교분석 결과, 국토부 건물(집)값이 더 높은 주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국세청 건물(집)값이 더 높았다. 값이 가장 많이 다른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의 A주택으로 국토부 고시한 값은 90억6,000만원인 반면, 국세청이 산정한 값은 16억6,000만원, 같은 주택이지만 가격차이가 74억원에 달했다. 공시가격 1위인 서울시 용산구 A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35억원이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10억원이고, 차액은 25억원이었다. 공시가격 11위인 강남에 위치한 B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73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은 20억으로 53억 차이가 난다. 국세청 건물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 16위인 용산구 C주택의 국토부 건물가격은 -10억원이지만, 국세청 건물가격은 3억4,000만원이다. 평균으로 보면, 국토부 평균 18억 국세청의 건물가격 평균은 10억으로, 8억 차이에 58% 수준이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축! 전주매일 창간

임실치즈농협 SINCE1967

임실치즈스틱&돈까스 세트

Imsil Cheese Stick & Pork Cutlet Gift Set

임실치즈(100%국내산 원유)의 치즈스틱과 국내산 돼지고기와 임실치즈로 만든 임실 치즈 돈까스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스까지 구성된 선물세트입니다.

- ✓ 프리미엄 임실치즈스틱 1개
- ✓ 임실치즈생돈가스 1개,
- ✓ 임실치즈 돈까스소스 1개

36,000원

주문전화 063) 640-6426

NAVER 임실치즈농협